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The Ec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박민정

교수 최보가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yungbuk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Park, Min-Jung

Professor : Choi, Bo-G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c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For this purpose, Ecological Variables which were expected to affect on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selected from organism(sex, age, self-esteem, impulse, anxiety, depression and locus of control), microsystem(parenting styles, child abuse, marital conflict, friends relationship, peer victimization, support · corporal punishment · emotional violence by teacher), mesosystem(family - peer relationship, family - school relationship), and exosystem (neighborhood environment, exposure to mass-media violence).

The subjects were 803 - 1st graders of several middle and high schools in Taegu and Kyungpook. According to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was affected by age, impulse, depression, locus of control, father's emotional abuse, mother's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marital conflict of parents, contact with deviant friends, relational victimization by peer, emotional violence by teachers, and exposure to mass-media violence. And school and peer microsystem was the most important system to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주요어(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 생태학적 변인(ecological variables)

1.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학교 폭력이나 또 괴롭힘과 같은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이다. 청소년의 이러한 공격 행동은 형태는 다르지만,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가해 청소년이나 피해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되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6; Kupersmidt, Coie, & Dodge, 1990).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공격의 표현방식이 명백하고 상

대적으로 남아에게 많이 나타나는 외현적 유형의 공격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Crick & Werner, 1998).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은 주로 남아에게만 나타난다고 단정짓고 남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연구와 그 대책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며 여아들은 공격성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최근 공격성의 개념에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시킨 이후 변화하고 있다. 관계적 공격성은 소문 퍼뜨리기나 또래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행동 등과 같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형태의 공격성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은 여아가 남아만큼 공격적이고(이경희, 1998; Crick & Grotpeter, 1995), 청소년기에는 외현적 공격성보다 남녀 모두에게 관계적 공격성이 많아진다(Cairns, Cairns,

* 주 저 자 : 박민정 (E-mail : mjphur@yahoo.co.kr)

Neckerman, Ferguson, & Garieoy, 1989)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을 제외하고 외현적 공격성만을 가지고 청소년의 공격성을 연구한 경우, 상당수의 청소년이 관계적 공격성이 높으면서도 공격적인 집단에서 제외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주위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성과 연령(이민아, 1999; Crick & Grotpeter, 1996; Olweus, 1994), 또래로부터 거부(Kupersmidt 등, 1990), 자아존중감(이민아, 1999; Rigby & Slee, 1993), 불안(Crick & Dodge, 1998), 우울(Crick & Dodge, 1998), 충동성(이춘재, 1999), 내적 통제성(김애경, 2001; 박영신·김의철, 1998) 등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 특성들을 변화시킨다면 공격적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는 공격성을 지나치게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변화한다하여도 집단과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공격적 성향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Slay & Guerra, 1988; Hart, Nelson, Robinson, Olsen, McNeilly-Choque, Porter, & McKee, 2000),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Patterson, 1986), 부모의 학대(김현수, 1997; 안혜영, 1998), 부모의 결혼만족도나 결혼 갈등(Howes & Markman, 1991; Hart 등, 2000), 그리고 가족의 기능(정재임, 2000; Hart 등, 2000)등과 같은 가정환경 변인과 우정, 친구로부터의 지지, 비행또래와의 관계(Parke & Slaby, 1983),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학교환경(이상균, 1999), 그리고 기타 폭력적인 매체(구정화, 2000)등의 환경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공격성에 대한 문제를 단일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오류를 가진다. 최근, 단일요인들에 의한 공격성 연구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다요인적인 접근에 의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이상균, 1999; 정재임, 2000),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를 할 때는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은 청소년의 외현적·관계적 공격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론적 접근을 제시할 수 있다. 생태학적인 관점은 청소년을 다양한 수준의 주위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관계의 체계 속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의 변화와 특성은 개개인의 신체적, 지적, 성격 특성과 환경적 기회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은 개인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체계의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가 개인의 특성에만 집중하거나 가정환경이나 또래 관계 맥락과 같은 단편적인 환경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나 치료 및 예방에도 한계가 있고 보다 적절한 대안을 위해서는 생태학적인 접근으로 공격성

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생태학적 체계는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그리고 거시체계와 시간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Bronfenbrenner, 1992).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 관련 특성들은 선행연구(김민정·도현심, 2001; 이경희, 1998; Crick & Grotpeter, 1995)를 기초로 청소년의 성, 학년, 불안과 우울, 자아존중감, 충동성, 내적 통제성을 선정하였다. 미시체계는 개인이 가장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게되는 환경으로 청소년의 경우 가정, 학교 및 또래 환경이 해당된다. 가정 미시체계 변인으로는 부모의 부정적·긍정적 양육태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상황에 폭력의 사용유무를 선정하였고, 학교 및 또래 변인으로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지만, 교사의 지지와 폭력,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괴롭힘을 선정하였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간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가정-또래관계, 가정-학교 관계를 선정하였고, 외체계 변인은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환경으로 거주지의 환경과 폭력경험, 그리고 대중매체에서의 폭력 노출정도를 설정하였다. 생태학적 모델에서 포함된 거시체계와 시간체계는 본 연구의 대상이 동시대의 동일한 문화권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대상 청소년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 변인, 가정 미시체계변인, 학교 및 또래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그리고 외체계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조사하는 것은 단편적인 변인고찰이 아닌 포괄적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몇몇 요인과 근접환경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통해 유발됨을 시사해 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유기체 변인, 가정 미시체계 변인, 학교 및 또래 미시체계변인, 중간체계 변인, 그리고 외체계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와 경북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803명(남 375명, 여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0대이고, 아

버지의 82.7%, 어머니의 78.5%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직업은 생산직 30.6%, 판매서비스직 26%, 사무직이 29.7%였고, 어머니의 53.6%가 전업주부였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

Crick과 Grotpeter(1995, 1996)의 척도와 Dodge와 Coie(1987)의 척도, 그리고 Hart 등(2000)의 척도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10문항의 4점 척도로 그 내용은 또래에 대한 나쁜 소문 퍼뜨리기, 집단에서 소외시키기, 무시하기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8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유기체 특성 변인

(1)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 = .84였다.

(2) 불안과 우울

전귀연(1993)의 척도를 수정한 권미연(1997)의 불안(7문항)과 우울(8문항)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4점 Likert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의 결과 Cronbach α = .84와 .88로 나타났다.

(3) 충동성

구정화(2000)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의 결과 Cronbach α = .93으로 나타났다.

(4) 내적통제성

김애경(2001)이 사용한 내외통제척도를 요인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총 7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6으로 나타났다.

3) 미시체계변인

(1) 부모의 양육행동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중에서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밀관성,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의 하위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2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의 내용이,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는 과잉간섭, 과잉기대, 그리고 비밀관성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총 30문항의 4점척도로 구성되며,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Cronbach α = .87,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Cronbach α = .84, 그리고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Cronbach α = .84, .84로 나타났다.

(2) 아동학대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 고성혜(1992), 김현수(1997)의 척도를 참고로 연구자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리커트 방식으로 청소년이 평정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계수는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는 .74, 정서적 학대는 .70, 방임은 .69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신체적 학대는 .74, 정서적 학대는 .67, 그리고 방임은 .65로 나타났다.

(3) 부모 갈등시 폭력 사용

권영옥과 이정덕(1996)의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원래의 척도는 9개 하위요인의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3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강도와 해결 요인들을 선택하여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 최종 분석에는 부부갈등시 폭력사용의 여부라는 1요인 5문항이 사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님이 갈등 상황에서 폭력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4였다.

(4) 교사에 의한 폭력

학교상황에서 교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체벌, 정서적 폭력의 2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지고 1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에 의한 폭력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8과 .85였다.

(5) 교사에 의한 지지

Dubow와 Ulman(1989)의 사회적지지 척도 중 교사관련 부분 5문항을 사용하였고,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9이었다.

(6) 친구 관계

친구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병호(1999)와 남현미(1999)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척도는 친구에 대한 애착이나 동조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10문항이고, 비행 친구와의 접촉에 관한 것이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친구의 행동에 대한 동조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도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 친구와 접촉이 많음을 의미한다. 친구 애착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9$ 였고, 비행 친구와의 접촉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4$ 였다.

(7)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피해경험

Crick(19967)의 척도를 참고로 제작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언어적인 괴롭힘 3문항, 신체적인 괴롭힘 4문항, 관계적인 괴롭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74$, .73, 그리고 .78이었다.

4) 중간체계변인

(1) 가정-학교 관계

정계숙(1990)과 최명선(1998)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부모님의 학교참여, 교사-부모 상담, 그리고 물리적 지원에 대한 문항들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와 가정간의 관계가 원만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 .76$ 이었다.

(2) 가정-또래 관계

Mounts(200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자녀의 또래에 대한 호감, 또래의 이름인지, 또래와의 활동에 대한 인지와 지지여부 등을 포함하고 총 6문항으로 제작되었다. 4점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 $\alpha = .62$ 였다.

5) 외체계변인

(1) 대중매체에서의 폭력노출

김현실(1996)이 개발한 대중매체에서의 노출에 관련된 11문항 중 폭력에 관련된 5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중매체에서의 폭력노출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였다.

(2) 지역사회환경

청소년의 지역사회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Riner(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거주지의 환경(4문항), 거주지에서의 폭력 경험(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환경이 긍정적이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 .53$ 과 .68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는 대구·경북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1,000명을 대상으로 2002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급을 찾아가 설문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실시 직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부실기재와 결손 가정 청소년의 자료를 제외한 총 803명의 자료가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그리고 평균을 산출하였고,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체계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그리고 거시체계변인들을 묶어서 단계별로 투입하여 설명력의 증가를 보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고 바람직한 회귀모형을 제시하고자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Tolerance값, 그리고 VIF 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낮았고, Tolerance값이 0.3이상이고 VIF값이 4이하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중에서 불안과 우울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상관관계가 각각 $r=.76$ 과 $r=.82$ 로 매우 높았으나, Tolerance값과 VIF계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변인 모두를 회귀분석하였다.

1.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유기체, 가정 미시체계, 학교 및 또래 미시체계, 중간체계, 그리고 외체계 변인의 순으로 체계변인들을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모델 1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성, 연령, 자아존중감, 충동성, 불안과 우울, 그리고 내적 통제성과 같은 유기체 변인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로, 충동성($\beta=.21$), 우울($\beta=.19$), 내적 통제성($\beta=-.10$), 그리고 연령($\beta=.10$)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성, 우울 수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내적 통

체성이 낮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기체 변인들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의 13%를 설명하고 있다.

모델 2는 가정환경과 관련된 미시체계 변인을 추가한 것으로 어머니의 신체적 학대($\beta=.18$)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beta=.17, .12$), 그리고 부모간의 폭력사용($\beta=.09$)이 유의미한 변인

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신체적 학대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부모간의 폭력사용을 많이 목격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미시체계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모델 1에서보다 6% 증가하여 전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은 19%로 증가하였다.

<표 1>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모델 1 (유기체)		모델 2 미시체계(가정)		모델 3 미시체계 (학교 및 또래)		모델 4 중간체계		모델 5 외체계	
	B	β	B	β	B	β	B	β	B	β
성	.19	.02	.14	.02	.39	.05	.42	.05	.50	.06
연령	.86	.10**	.87	.11**	.71	.08**	.74	.09**	.61	.07*
자아존중감	-.02	-.02	.00	.00	.01	.02	.02	.02	.02	.02
충동성	.16	.21**	.15	.17***	.10	.11**	.10	.11**	.09	.10*
불안	-.07	-.07	-.07	-.08	-.07	-.07	-.08	-.08	-.08	-.08
우울	.15	.19**	.13	.16**	.11	.14**	.11	.14**	.11	.14**
내적통제	-.10	-.10*	-.10	-.10*	-.11	-.09*	-.09	-.09*	-.09	-.09*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			.03	.08	.03	.06	.04	.07	.04	.08
부정적 양육행동			-.05	-.11	-.06	-.13*	-.07	-.14*	-.07	-.14*
신체적학대			.00	.00	.03	.02	.03	.02	.05	.03
정서적학대			.27	.17***	.18	.12*	.18	.11*	.17	.11*
방임			.03	.03	.01	.01	.01	.01	.08	.01
어머니의										
긍정적양육행동			.00	.00	.01	.02	.02	.04	-.02	.03
부정적 양육행동			.05	.09	.05	.10	.05	.11	.06	.11*
신체적학대			.32	.18***	.27	.15***	.26	.14**	.23	.13**
정서적학대			.18	.12**	.21	.14**	.20	.13**	.19	.13**
방임			.00	.01	-.00	-.00	-.01	-.00	-.00	.00
부모갈등시폭력 사용			.14	.09*	.14	.07*	.14	.10**	.14	.09**
친구애착					.04	.06	.04	.07*	.03	.05
비행친구접촉					.15	.16***	.15	.16***	.14	.15***
또래피로움										
언어적피로움					-.13	-.05	-.14	-.05	-.15	-.06
신체적피로움					.03	.02	.02	.01	.03	.02
관계적피로움					.74	.27***	.74	.27***	.73	.26***
교사의 지지										
체벌					-.09	-.05	-.09	-.05	-.08	-.05
정서적 폭력					-.04	-.04	-.04	-.03	-.04	-.04
정서적 폭력					.12	.17***	.12	.17***	.12	.16***
가정-또래관계							-.11	-.06	-.11	-.06
가정-학교관계							.02	.02	.02	.02
거주지환경									.08	.04
거주지 폭력목격									.05	.03
대중매체폭력노출									.08	.08*
R ²	.13		.19		.32		.32		.33	
adjusted R ²	.12		.17		.30		.30		.30	
F	15.39***		9.30***		12.85***		12.04***		11.15***	

*p<.05, **p<.01, ***p<.001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행동($\beta = -.13$)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추가로 투입된 학교 및 또래 미시체계 변인들 중에서, 또래로부터의 관계적 괴롭힘($\beta = .27$), 교사의 정서적 폭력($\beta = .17$),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beta = .16$)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경험할수록, 또래로부터의 관계적인 괴롭힘, 교사의 정서적 폭력,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또래 미시체계 변인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모델 2보다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13% 증가하였고, 모델 3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의 32%를 설명하였다.

모델 4에서는 중간체계 변인들인 가정-또래 관계와 가정-학교관계를 투입하였는데, 새로운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설명력도 32%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5에서는 이전 모델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beta = .11$)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고, 거주지 관련 변인과 대중매체 관련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대중매체에서의 폭력 노출($\beta = .08$)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의 폭력 노출을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5의 총 설명력은 33%로 이전 모델보다 1%의 설명력 증가를 나타내었다.

<표 1>에 의하면, 기타 체계들은 통제하고 유기체 변인만을 투입한 모델 1의 설명력과 학교 및 또래 관련 미시체계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지만, 유기체 변인들의 영향력은 기타 체계변인들을 차례로 투입함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은 학교 및 또래 미시체계 변인들을 투입했을 때, 설명력의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 괴롭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은 다른 체계 변인들보다도 학교 및 또래 환경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 변인들에 대한 연구이다.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기체 변인으로 청소년의 성, 연령, 자아존중감, 우울, 그리고 내적 통제성, 미시체계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대, 부부 갈등시 폭력사용, 친구관계와 또래 괴롭힘, 교사의 지지, 체벌, 그리고 정서적 폭력, 중간체계 변인으로 가정-또래관계와 가정-학교관계, 그리고 외체계 변인으로 거주지 환경과 대중매체에서의 폭력노출을 설정하였

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대구·경북의 중·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80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유기체 특성으로는 연령, 충동성, 우울과 내적 통제성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성과 우울 수준이 높고, 내적 통제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체 변인들 중에서 청소년의 성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계적 공격성에서의 성차가 없다고 보고한 김민정과 도현심(2001), 이춘아(2001), Hart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관계적 공격성이 여아들에게 매우 특징적인 형태라고 보고한 이경희(1998), Crick과 Grotpeter(1995)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같은 관계적 공격성에서의 불일치는 학령기 초기에는, 남아가 외현적 공격성이 높고 여아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지만, 학년이 높아지고 청소년기에 도달하면서 남녀 모두에게서 관계적 공격성이 많아진다는 Cairns 등(198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은 사회적 비난을 지각하고 두려워하여, 공격적인 행동의 표현이 직접적인 명백한 외현적 공격성은 점차 감소하지만, 그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이고 관계적 공격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동성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충동적인 경향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춘재, 1999; Bernstein & Watson, 1997; Olweus, 1994)과 일치하고,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Crick과 Grotpeter(1995)의 결과와 일치한다. 아마도 청소년 스스로가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내적 통제성이 낮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김애경, 2001)와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과 그들의 심리적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부적응을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동성을 억제하고 우울 수준을 낮추고 내적 통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하위유형을 통합하여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김혜원·이해경, 2000; 최윤희, 2002; Rigby & Slee, 1993)에서, 연구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의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후속 연구가 더 요구된다.

둘째, 가정 관련 미시체계변인에서는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 행동을 적게 경험할수록,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와 어머니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김민정과 도현심, 2001; Hart 등, 1998; Hart 등, 2000)와 일치하지만,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박혜경·박성연, 2002; Eckenrode 등, 1993; Hart 등, 2000)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가정관련 변인들을 투입했을 때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또래 및 교사 관련 변인들과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도 거주지 환경과 대중매체에서의 폭력노출이라는 변인들과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관계적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 부분, 척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청소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모의 행동을 묻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상당수 청소년들이 과거부터라기 보다는 조사시점의 부모의 양육행동만을 평가했으리라 생각되며 문항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부모의 행동에 대한 평균적이면서 회상적인 평가가 되어서 응답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향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학대 관련문항에서만 변별력이 나타났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관계적 공격성은 여성에게 훨씬 더 보편적인 공격유형인데, 부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성별이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다. 부모간 갈등시 폭력 사용을 많이 목격할수록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과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매우 일관성 있는 것으로(김민정·도현심, 2001; Davies & Cummings, 1998), 부모들간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강력한 모델이 되어 유사한 상황에서 재현됨을 증명하고 있다.

셋째, 학교 및 또래 미시체계 변인들 중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 괴롭힘, 그리고 교사의 정서적 폭력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소년시기의 독특한 특성이 아닌가한다. 폭력행동을 포함하는 비행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한 관계적 공격 행동에 대해 거부감이 적을 것이고,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행

동에 대해서도 마지못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또래로부터의 관계적 괴롭힘을 많이 받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격성과 피공격성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선행연구(김현수, 1997; 이상균, 1999; 최자은, 1998; Hanish & Guerra,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피해경험은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교사들로부터의 학습처럼 폭력에 대한 일종의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정서적 폭력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폭력을 경험할수록 또래에 대한 폭력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이상균(1999)과 최자은(199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가정보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청소년 시기의 교사는 청소년에게 매우 의미있는 모델로써 그들의 폭력사용은 청소년들에게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정서적 폭력은 일반적인 체벌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실행의 모델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간체계변인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연구대상의 학교나 또래 관계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외체계 변인에서는 대중매체에서의 폭력 노출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중매체에서의 폭력노출이 공격성을 조장한다는 최자은(1998)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 공격성처럼 관계적 공격성도 대중매체에 의한 모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여섯째,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들을 살펴본 결과, 학교 및 또래 미시체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그들을 둘러싼 미시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Bronfenbrenner(1992)의 이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Bronfenbrenner(1992)에 의하면, 체계 외부로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중간체계의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간체계를 측정할 척도가 부적절했을 가능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및 또래 미시체계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학교환경에서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많기 때문으로, 청소년의 적응에 학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이는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 체계에 비해 학교 환경은 전문가들의 개입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 생각된다. 학교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처방과 개입을 마련하여 실행한다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환경에서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은 가정과

학교 또래, 그리고 사회전반의 역기능성을 반영하는 폭력의 성격을 가지는 것 같다. 따라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을 개인이나 미시체계 각각의 영역에서만 접근하고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사회영역에서 함께 노력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적 개입을 제공하는 학교 및 지역사회 상담실의 활성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한 청소년 쉼터 및 문화공간의 확대, 획일적인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생들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및 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환경 변인 중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행동 척도가 부모의 부정적·긍정적 양육행동의 측면으로 구성되어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세분화된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한다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와 또래 관련 변인들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체계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환경이 청소년들의 행동 및 발달에 중요한 환경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 환경 변인들 중 교사 관련 변인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교사 관련 변인 이외의 다양한 학교 환경이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중간체계 변인과 외체계 변인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실제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 발달에 중간체계와 외체계의 영향이 유기체 특성이나 미시체계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지만, 국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중간체계 및 외체계 척도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중간 및 외체계를 측정하는 데 부적절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변인들 중 일부만을 사용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적절한 척도 개발 및 변인선택이 요구된다.

□ 접수 일 : 2004년 05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7월 26일

【참 고 문 헌】

-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 성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구정화(2000). **청소년의 폭력성 멀티미디어의 수용정도가 폭력 성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미연(1997). **약물남용 청소년의 개인적·가족적·또래관계적 특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영옥·이정덕(1996).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복지학회**, 18(10), 65-79.
- 김민정·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병호(1999). **청소년 학교폭력의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2001). **내외통제성, 가족의 지지, 가족의 응집 및 적응성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85-196.
- 김현수(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경험과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실(1996). **폭력매체에 의한 비행행동의 구조 모형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이혜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심리적 변인들**.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1998). **청소년의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구인양식, 건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혜경·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안혜영(1998). **어머니의 아동학대에 관한 예측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아(1999). **초등학생의 집단 괴롭힘 개입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춘아(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춘재(1999).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11-25.
- 정계숙(1990). **도시와 농촌아동의 학습준비도를 결정하는 생태학적 변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임(2000). 청소년의 폭력성 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명선(1998). 경제위기하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의 구조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2002).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 집단의 동조행동과 자아 존중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자은(1998).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rnstein, J. Y. & Watson, M. W. (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483-498.
- Bronfenbrenner, U. (1992). **인간발달생태학**. 이영(역). 서울: 교육과학사.
- Cari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I. Ferguson, L. L. & Garieoy, J. L.(1989). Growth and aggression: 1.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20-330.
- Coie, J. D. & Dodge, K. A.(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 N. Eisenberg,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New York: Wiley.
- Crick, N. R.(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 & Dodge, K. A.(1998).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Crick, N. R. & Werner, N. E.(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8). Exploring children's emotional security as a mediator of the link between marital relations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24-139.
- Dodge, K. A. & Coie, J. D.(1987). Social-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 Dubow, F. & Ulman, C(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Echenrode, J., Laird, M. & Doris, D.(1993). School performance and disciplinary problems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53-62.
- Hanish, L. D. & Guerra, N. G. (2000). Predictors of peer victimization among urban youth. *Social Development, 9*(4), 521-543.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 -school -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87-697.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McNeilly-Choque, M. K., Porter, C. L. & McKee, T. R.(2000). Russian parenting styles and family processes: Linkages with subtypes of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In Kerns, K. A., Contretras, J. M. & Neal-Barnett, A. M.(Eds.). *Family and peers: Linking two social worlds*. Westport, Praeger.
- Howes, C.(2000). Social-emotional classroom climate in child care, child-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cond grade peer relations. *Social Development, 9*(2), 191-204
- Howes, P. & Markman, H. J.(1991). Marital ability and child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 Development, 60*, 10 45-1051.
- Kupersmidt, Coie. & Dodge(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Mounts, N. S.(2000). Parental management of adolescent peer relationship: What are its effects on friend selection? In Kerns, K. A., Contretras, J. M. & Neal-Barnett, A. M.(Eds.). *Family and peers: Linking two social worlds*. Westport, praeger.
- Olweus(1994). Annotations: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Mussen, P. H. & Hetherington, E. M.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547-641).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 432-444.
- Rigby, K. & Slee, P. T.(1993). Australian school children's self appraisal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 bullying experience. *Chil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23*(4), 273-282.

- Riner, M. E. K.(1998). *Social ecology model of adolescent interpersonal violence prevention*. Indiana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laby, R. G. & Guerra, N. G. (1988). Cognitive mediators in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I.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0-588.